

대출금리 줄인상에 휘청이는 자영업자

사업자·신용한도·물적담보대출 등 3개월 평균 0.25%p 상승 0.1%p만 올라도 1년 뒤 폐업 위험성 10% ↑ ...불경기 이중고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횡집을 운영 중인 김모(57·남)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곳에서 영업을 시작해 나쁘지 않은 수익을 올려왔지만 최근 경기불황과 부정 청탁 및 고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바람에 손님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새로운 곳을 찾아 사업할 생각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위해 평소 거래하던 은행을 방문했다. 그러나 상담 후 걱정은 더 커졌다. 이미 빚을 지고 있던 김씨의 신용등급은 중저등급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최근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마저 빠르게 오름에 따라 6~7%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최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각박이나 불황에 시름하던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26일 6대 주요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보증서담보대출·물적담보대출·신용대출·신용한도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10월 중 4.10%에서 지난 1월 4.32%로 3개월새 0.22%포인트나 올랐다.

특히 신용한도대출(마이뉴스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다. 지난해 10월 중 4.82%였던 신용한도대출의 평균금리는 지난달 5.10%로 0.28%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신용한도대출 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1월 기준 6.39%다. 이어 국민은행(5.21%), 신한은행(5.14%), 하나은행(4.66%), 농협은행(4.65%), 우리은행(4.54%) 순이다.

부실 가능성이 적은 보증서담보대출 금

리가 오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보증서 담보대출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대출로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은행은 돈을 매일 우려가 거의 없다.

지난해 10월 6대 은행 평균 3.38%였던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3.62%로 0.24%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안전성과 관계없이 은행들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더욱 간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밖에 같은 기간 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28%에서 3.47%, 신용대출 금리는 4.94%에서 5.12%로 각각 0.19%포인트, 0.18%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 영업을 강화하면서 금리를 낮춘 상품들을 많이 출시했다”며 “기존 상품들이 모두 팔리고 대출 금리가 원상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최근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만큼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 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인상이 자칫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불경기엔 대출을 받은 뒤 두세 달만 적자를 봐도 가계가 휘청거리는데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가 활로를 찾기 힘든구조가 됐다고 말한다.

이와관련 남윤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대출금리(중소기업 이자율 기준)가 0.1%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가 1년 뒤 폐업할 위험성은 최대 10% 늘어난다”며 “폐업 위험은 음식·숙박업 10.6%, 수리·기타 서비스업 7.5%, 도·소매업 7% 순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

중소기업(5~299인)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06만원으로 대기업의 54.5%에 불과했다.

2015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청년층 취업선호도에서 중소기업은 6.1%로 국가기관(23.7%), 공공기관(19.5%), 대기업(18.7%)에 훨씬 못 미쳤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2015년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5%가 ‘현재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인력 수급이 악화할 것’이라고 대답한 중소기업도 41.0%에 달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직업인 양성 교육기관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소 제조업 임금 대기업의 절반

299인 이하 월 평균 306만원...구직난에도 입사 기피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일이 많다. 청년 구직자들이 임금 많이 주고 직업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26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15~64세) 실업률 3.7%의 3배에 가깝다.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 아우성이지만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속을 끓인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취업준비생들이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5년 현재 중소기업 제조업 직원 급여 수준은 같은 업종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했다. 대기업(300인 이상) 직원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총액이 561만원이었

중소기업(5~299인)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06만원으로 대기업의 54.5%에 불과했다.

2015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청년층 취업선호도에서 중소기업은 6.1%로 국가기관(23.7%), 공공기관(19.5%), 대기업(18.7%)에 훨씬 못 미쳤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2015년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5%가 ‘현재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인력 수급이 악화할 것’이라고 대답한 중소기업도 41.0%에 달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직업인 양성 교육기관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어린이 금융교육 ‘금융을 부탁해’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 24일 광주광역시 동구 동성동에서 어린이 30여명을 초청해 ‘금융을 부탁해’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 24일 광주광역시 동구 동성동에서 어린이 30여명을 초청해 ‘금융을 부탁해’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번째이자, 총 10회차를 맞은 ‘금융을 부탁해’ 금융교육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은행 직원들이 직접 금융교육을 기획하고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다양한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다.

이날 초청된 지역 어린이 30여명은 현명한 용돈관리를 위한 용돈기입장 쓰는 법, 보드게임을 통한 재미있고 쉬운 경제알기 등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받았으며, 광주은행 금융박물관 견학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저축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는 금융습관을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조달청 상반기 1조3000억원 집행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박정환)은 올해 조달사업 목표액 2조2463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사업 실적 2조1920억원 대비 2.5% 늘었으며 사업별로는 물품구매가 1조8178억원, 시설공사가 4285억원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목표액의 약 58%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조달청은 또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계약 이행 전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무 지급률을 현행 기준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계약 절차 소요일도 단축한다. 이를 위해 광주조달청은 주간 단위로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수요기관에 대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건설단체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

“은행권 중도금 대출 거절·금리 인상에 입주 포기 부작용”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는 지난 22일자로 정부 당국에 중도금 집단대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출취급을 거절하거나 가산금리를 부여해 지난해 12월부터 집단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 중도금·잔금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과도금리인상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주택업체들의 미분양증가 및 입주예정자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을 우려했다.

이와함께 “11·24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지원을 정상화하고 LTV가 60% 이하인 안전한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며 중도금·잔금 집단대출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건의문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로도복권 (제74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5 19 21 34 41 44	1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608,641,000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6,161,185	46
3 5개 숫자일치	1,535,527	1,982
4 4개 숫자일치	50,000	91,886
5 3개 숫자일치	5,000	1,555,362

원,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역 수출기업 지원·세수 확보 총력”

양승권 광주본부세관장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지난 24일 광주광역시 동성동에서 취임식을 가진 제36대 양승권 광주본부세관장은 “국가재정 뒷받침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국민안전 보호,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광주 출신으로 대동고와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광주세관 감사담당관, 전천세관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과장 등을 역임했다.

양세관장은 은화한 성품과 뛰어난 업무추진 능력으로 대내외적 신망이 두터워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혜택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용품 후원/골프투어 지원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회원가입 혜택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레이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로비스콘드, 서해안변신,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빌, 화순, 속초, 제주, 송두 금호리조트

특허방수

2중압박 단열방수, 내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상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랄렌트 이영 후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패턴이탈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 아닌 현대적이고 클래식한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스템!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